

책의 도시 전주서 펼쳐지는 그림책의 마법

‘제4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5월 29일~6월 29일 개최… 그림책 원화 전시·강연 등 진행

오는 5월 책의 도시 전주에서 펼쳐지는 ‘제4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이 한국과 스웨덴을 대표하는 그림책 작가들과 국·내외 출판인들의 참여로 더욱 다채롭게 꾸며진다. 전주시는 ‘제4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의 원화전시 참여 작가로 △백해나 △사라 룬드베리 △에바 린드스트룀 △키티 크라우더 작가 4인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국·내외 유명 그림책 작가들의 작품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림책 원화 전시는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팔복예술공장과 완산도서관에서 진행된다.

이 기간 팔복예술공간 이팝나무홀에서는 백해나 작가와 사라 룬드베리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완산도서관 전시실(완산마루)에서는 에바 린드스트룀과 키티 크라우더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다.

먼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림책 작가인 백해나 작가는 지난 2005년 ‘구름빵’으로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제4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포스터

선정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지난 2020년 ‘어린이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대표작으로는 △연이와 버들 도령 △장수탕 선녀님 △알사탕 등이 있다.

또 다른 초청작가인 스웨덴의 사라 룬드베리 작가는 올해 최고의 스

웨덴 아동도서상을 두 차례나 수상한 저명한 그림책 작가다. 지난 2013년 볼로냐 아동 도서 부문에서 스웨덴을 대표하는 일러스트레이터 31인에 선정됐으며, 2017년에 쓰고 그린 그림책 ‘내 안의 새는 원하는 곳으로 날아간다’로 아우구스트상과 스노볼렌상, 엘사 베스코브상을 수상했다. 올해는 이번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에서 전시될 ‘오로지 나만’으로 볼로냐 라가치상을 받기도 했다.

에바 린드스트룀 작가는 스웨덴도서관회가 최고의 그림책에 수여하는 ‘엘사 베스코브상’과 올해의 스웨덴 그림책에 수여하는 ‘스노볼렌상’, 스웨덴의 대표 문학상인 ‘아우구스트상’ 등을 수상하는 등 스웨덴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림책 작가 중 한 명으로 전 세계 수많은 작가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세계 최고의 아동문학상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상’을 수상했으며, 대표작으로는 △나는 너무 바빠 △우리를 사냥하지 마 △슬라이와, 라일라 등이 있다.

끝으로 키티 크라우더 작가는 지

난 1994년 발간한 그림책 ‘나의 왕국’을 시작으로 50여 권의 그림책을 펴내며 다수의 아동문학상을 수상했다. 이후 지난 2010년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상’을 수상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으며, 대표작으로는 △메두사 엄마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험 △작은 죽음이 찾아왔어요 등이 있다.

시는 원화전시 외에도 올해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에서 초청작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국제 콘퍼런스와 강연, 워크숍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사라 룬드베리 작가의 경우 이번 강연을 통해 최초로 국내 독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분부장은 “그림책 한 권에는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마법이 깃들여 있다”면서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을 통해 그림책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다채로운 전시와 특별한 만남을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튼튼머니’ 적립 체육시설 확대

전주시설공단, 12개 시설서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적립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스포츠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튼튼머니’를 적립할 수 있는 체육시설 수를 대거 늘렸다.

공단은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튼튼머니’를 적립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기존 완산생활체육공원(인공암벽장, 실내 테니스장)과 전주실내배드민턴장 2곳에서 총 12개 체육시설로 늘었

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튼튼머니 적립 시설로 등록을 마친 체육시설은 총 10개로 덕진수영장과 완산수영장, 화산체육관, 방산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 한바탕국민체육센터, 어울림국민체육센터, 도내기삼국민체육센터, 라온체육센터, 예코체육센터다.

튼튼머니는 체력 진단과 스포츠활동



덕진수영장

에 참여해 포인트를 적립하고 스포츠 용품을 구매하거나 병원, 약국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 복지서비스다.

운동을 시작할 때 한 번, 30분 운동

후 끝날 때 한 번 QR코드를 스캔하면 1000포인트가 적립된다.

하루 1회, 주 3회, 연 50회까지 적립이 가능하며, 1000포인트 단위로 스포츠 상품권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튼튼머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포인트 전환 신청과 사용자 등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력100’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연상 이사장은 “스포츠 복지서비스 확대로 시민들에게 스포츠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공공체육시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먹는 물 안전성 확보 ‘만전’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시설물 일제 점검·해빙기 수질 특별관리

전주시가 봄철을 맞아 먹는 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본부장 김종성)는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상하수도 분야 시설물 일제 점검 및 수질 특별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봄이 되면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얼어있던 상하수도 시설물의 팽창 등으로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돼 수질이 나빠지는 등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봄철을 맞아 △상수도 시설물 일제 점검 △해빙기 먹는 물 수질 특별관리 △하수도 관망사업(우·오수 분리사업)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먼저 시는 배수지와 가압장, 상수도 급수관 등 주요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배수지 등 대형 구조물 점검 △가압장 등 기전설비 점검 △상수도 급·배수관에 대한 도로 누수 여부 △소화전 및 밸브류 누수 점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정비토록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응급조치 후 전문업체에 조치 의뢰할 계획이다. 또, 결함이 지적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상 유무를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해빙기 수질 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먹는 물 수질 특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정주권 광역 상수원인 용담호의 수질 변화 추이를 면밀하게 살피고,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조

체제를 바탕으로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전주지역 배수지 10곳에 대해서는 공금 과징 중 2차 오염 여부를 정밀 조사하고, 수도꼭지수 수질검사를 통해 원수와 정수, 배수지 등 급수과정별 전 과정 수질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마을상수도과 소규모 급수시설 4곳에 대해서는 지하수 및 표류수 수질오염 조사와 더불어 소독약품 투입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또, 지정약수터와 공원 내 음수대 등의 경우에는 미생물 항목 등을 조사해 해빙기에 오염물질 및 병원성미생물이 먹는 물에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지역 11개 하수관로 정비사업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해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구체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시설물 손상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경우 부상 및 추락 방지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우수 및 오수반이에 대해서는 토사 퇴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적절한 조치를 통해 국지성 호우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성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장은 “해빙기에 오염물질 및 병원성미생물이 먹는 물에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와 더불어 철저한 사업장 관리로 재난사고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숨은 세원발굴 조사단’ 4월부터 운영

전주시는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2025년 숨은 세원발굴 조사단’을 구성하고 오는 4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올 한해 시정과 완산·덕진구청의 세무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상시 운영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를 집중 실시하는 등 세원 발굴 활동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탈루·누락 세원 제로(zero)화를 목표로 운영되는 숨은세원발굴 조사단은 5개 팀 31명으로 구성되며, △전문성 함양을 위한 담당자의 노하우 등 세무 업무 전반 공유 위한 직무 연찬 △세목별 상호 연계를 통한 비과세·감면 체계적 관리 △세목별 놓치기 쉬운 분야 집중 조사 및 점검으로 과세 사항

지대 해소 △지방세 신고제도 등 사전 안내를 통한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등을 도모하게 된다.

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3일간 조사단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직무 연찬을 통해 담당자의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준비를 통해 숨은 세원을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법인세무조사 및 기획세무조사 등을 통해 총 28억 원의 탈루·은닉세원을 추징했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누락·탈루되는 세원을 통해 세입 확충에 기여하고, 납세자간 공평과세를 통해 신뢰 제정을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세원발굴 조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윤환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A)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돌렸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제단은 조선 무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